

# 과학에서 문학으로

1950~1960년대 초 북한에서  
항일무장투쟁사 교육의 변화

---

조수룡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한국현대사 전공  
srcho98@gmail.com

---

- I. 머리말
  - II. 북한의 '역사과학'에 미친 소련의 영향과 그로부터의 이탈
  - III. 오체르크 문학의 수용과 변용
  - IV. 항일무장투쟁사 교육의 문학적 재구성
  - V. 맺음말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A2A03049762).

## I. 머리말

---

1947년 조선력사편찬위원회가 조직된 이래 북한 역사학계는 조사·연구 활동을 통해 ‘조선사’에 대한 나름의 역사상을 정립해왔다. 역사교육과 역사인식은 그와 같은 연구 활동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1970~1980년대를 거치며 현재 정립된 북한의 역사인식, 그 중에서도 현대사와 항일무장투쟁사에 대한 인식은 외부 학계에서 이해하고 있는 역사상과는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현재 북한의 역사교육 체계는 크게 『혁명력사』, 『조선력사』, 『세계력사』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 『혁명력사』는 오로지 김일성·김정일·김정숙 3인의 전기적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에서 ‘혁명력사’는 김일성 가계의 역사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에 많은 허구가 포함되어 있음도 잘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항일무장투쟁사와 관련한 북한의 역사인식이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채워지게 된 역사적 기원을 검토하고자 한다. 북한 역사학에서 민족해방운동사와 항일무장투쟁사 이해가 변화하게 된 정치사회적 배경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다루어진 바 있다.<sup>1</sup> 그러나 이것이 역사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직결되지는 못한다. 역사가의 역사인식이 보편성을

---

1 도진순, 「북한의 종파문제와 1920년대 민족해방투쟁에 대한 인식」, 『역사비평』 8호(1989); 신주백, 「북한의 근현대 반침략 투쟁사 연구」, 한국역사연구회 북한사학사연구반 편, 『북한의 역사 만들기』(푸른역사, 2003); 김광운, 「분단 60년 북한의 학문세계: 혁명역사 연구분야」, 『북한학연구』 4권2호(2008); 김재웅, 「현실정치의 규정력 아래 놓인 해방 후 북한의 역사서술: 북한 역사서술의 시원 검토」, 『역사와현실』 96호(2015); 조수룡, 「경합하는 ‘혁명전통’: 북한 초기 역사학계의 민족해방운동사 이해와 재구축」, 『사학연구』 137호(2020a); 홍종욱, 「북한 역사학 형성에 소련 역사학이 미친 영향」, 『인문논총』 제77권 3호(2020); 문미라, 「1950~1960년대 북한의 ‘혁명전통’ 확립과정과 역사인식의 변화」, 『역사와현실』 119(2021).

획득하려면 그것이 대중에게 다시 인식되는 과정, 즉 메타인식으로서 역사 교육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sup>2</sup> 따라서 북한의 역사인식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위해서는 역사학의 내용 외에도 역사교육의 방법과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서 해방 후 북한의 역사교육 체계와 이념이 형성되는 과정을 검토한 바 있으나, 그것이 전후에 겪은 변화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sup>3</sup>

그 중에서도 본 연구는 1950년대 후반 들어 북한 항일무장투쟁사 교육에서 문학 작품과 교육의 역할이 점차 늘어간 현상에 주목한다. 1955~1956년 북한에서 이른바 '주체'가 강조되면서 학교를 비롯한 교육 현장에서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사 교육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역사교육 과정에도 반영되었지만, 그보다는 문학교육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950년대 말에는 '혁명전통 교양'이 강조되면서 그 수단으로 역사·문학·도덕·예술 등 각 분야의 교육이 위계적으로 동원되는 양상을 보였다. 여기에 각종 일화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하는 역할이 역사보다는 주로 문학에 부여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1950년대 북한 항일무장투쟁사 교육의 변화와 관련하여 문학과 문학 교육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현행 교육에서 역사교육과 문학교육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은 기존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지만<sup>4</sup>, 그 역사적 연원과 맥락은 밝혀진 바 없다. 본 연구는 한국전쟁 시기 북한에 도입된 실화문학 장르인 '오체르크 문학'에 주목한다. 이 문학 장르가 1950년대 북한에서 활용되는 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혁명전통과

---

2 송상헌, 『역사 인식의 논리와 역사교육』(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9~10쪽.

3 김선호, 「국가건설기 북한의 역사교육체계와 교육이념: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제86호(2020); 김재웅, 「북한의 역사 교육체계 확립과 민족해방운동사 인식」, 『史叢』 102호(2021).

4 이영미, 「북한 역사교육과 문학교육의 내적 상관성」, 『국제어문』 제68집(2016).

공산주의 교육의 하위 범주로 역사교육과 문학교육이 위계화된 현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자료로는 《력사제문제》, 《력사과학》과 같은 역사학 잡지, 《문학예술》, 《조선문학》과 같은 문예지, 《인민교육》, 《교원신문》과 같은 교육 관련 정기간 행물을 이용하였다.

## Ⅱ. 북한의 ‘역사과학’에 미친 소련의 영향과 그로부터의 이탈

해방 후부터 195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북한 역사학계 내에는 다양한 관점이 공존하며 논쟁이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다. 일례로 파북 고려인 역사학자인 김승화는 1947년 저술된 리칭원의 『조선근대사연구』에 대해 서술 방향이 “과학적 맑스-레닌주의적 관점에 설 것이 아니라 ‘민족적 관점’에 서” 있음을 비판하였다.<sup>5</sup> 1955년 창간된 《력사과학》은 학계의 여러 주장이 소통하고 경합하는 장으로 기능하였다. 《력사과학》은 창간사에서 “력사 전선에서 창조적인 토론이 없이는” “엄중한 결함과 병’집들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sup>6</sup> 북한 역사학계는 ‘비판과 자기비판’을 위한 장으로서 각종 ‘토론회’와 ‘합평회’를 조직했다. 1950년대 중반 토론회와 합평회는 수시로 조직되어 북한 역사학계에서 하나의 의례로 자리 잡았는데, 이 시기의 토론회는 시종일관 학술적인 성격을 띠었다.<sup>7</sup>

5 김승화, 「비평과 서적해제 『조선근대사연구』(저작자 리칭원·조선력사편찬회 발간)」, 《근로자》, 1949년 제10호, 96~97쪽.

6 「조선 력사 과학 전선의 과업에 대하여」, 《력사과학》 1955년 제1호, 5쪽.

7 홍종욱, 「북한 역사학 형성에 소련 역사학이 미친 영향」, 『인문논총』 제77권 3호 (2020), 31~32쪽.

북한 역사학계의 '다양성'은 온갖 경향이 다 수용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북한 역사학의 기본 정신은 이른바 '과학적 태도'로서, 이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의미하였다. 1947년 조선력사편찬위원회 조직에 관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결정서는 조선 역사 편찬의 과제를 "가장 과학적이며 선진적인 사상에 의거하여 조선 민족의 장구한 역사를 고대로부터 오늘까지 옹계 표현시키어야 한다"고 밝혔다.<sup>8</sup> 여기서 '가장 과학적이며 선진적인 사상' 역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 진영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유일한 '과학'으로 표상되었고, 모든 학문은 '역사과학', '경제과학' 등 그 하위 범주로 위계화되었기 때문이다.<sup>9</sup> 1955년에 창간된 과학원 력사학연구소의 기관지 《력사과학》이라는 제호는 그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북한의 각 분야에서 그러했듯이, 역사학에도 소련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948년 7월 창간된 조선력사편찬위원회 기관지의 제호 《력사제문제》가 소련의 《Вопросы истории》의 조선어 번역인 것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소련 학자들이 저술한 많은 역사 논문들이 《근로자》와 《력사제문제》 등의 잡지를 통해 번역되었고, 소련 역사학계의 동향도 상세히 소개되었다.<sup>10</sup>

당시 북한 역사학에 영향을 미친 소련 역사학의 시각은 국가주의적-애국주의적 교의에 입각한 '국민사'였다. 1930년대 세계적으로 대두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는 소련 역사학에도 영향을 미쳤다. 스탈린은 '역사를 가지지 못한 열등한 민족'으로 간주되던 러시아인들이 역사 과학의 원조로서 '민족

8 「朝鮮歷史編纂會에 관한 決定書(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決定 第一八二號, 1947.1.7.)」, 『北韓關係史料集』 5(국사편찬위원회, 1987), 673쪽.

9 조수룡, 「정전 후 북한에서 사회주의 이행 논의와 정식화」, 『한국사연구』 190호(한국사연구회, 2020b), 307쪽.

10 조호연, 「북한 역사학과 소련 역사학의 관련성: 1945년부터 1963년까지」, 『한국학연구』 77호(2021), 156쪽.

의 역사 문제 해결'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민족 연구에 대해 높아진 관심에 의해 고대 러시아의 노예제 문제와 중세 농민의 생활이 검토되어 러시아의 역사가 서구 제국과 병행 발전해 왔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더욱 고양된 러시아 민족주의는 소련 학계에서 코스모폴리타니즘 비판과 반유대인 캠페인을 추동하였다. 이와 같은 소련 역사학의 흐름 가운데서도 북한 역사학계는 소련 역사학의 서구 식민주의 비판과 동양사에 대한 발전단계론의 적용에 주목하였다.<sup>11</sup>

같은 시기 북한의 역사교육은 '대중적 애국주의'를 강조하였다. 이는 "사회 발전 법칙과 계급 투쟁"의 관점 위에서 "외래 침략자를 반대하는 우리 나라 인민들의 투쟁과 문화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인식시키"는 것으로 이해되었다.<sup>12</sup> 1955년 초 평양사범전문학교 교원 전장석은 인민학교 4학년용 『조선력사』에 관하여 《교원신문》의 지면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도발 행위의 선수가 고구려라는 인식과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를 한 번도 침략한 일이 없다는 민족적 긍지의 교양과는 모순된다. [...] 외래 침략자들을 물리침에 있어서 인민 대중의 대중적 애국주의가 적게 서술되어 있으며 개개의 걸출한 장군들의 애국주의적 활동과 인민들과의 연계를 부족하게 서술하였다.<sup>13</sup>

다만 북한 역사학과 역사교육에서 애국주의 또는 민족주의에 대한 강조가 소련의 영향을 일반적으로 수용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양국 역사학은 미묘한 입장 차이를 노정하고 있었다. 북한 역사학은 소련의 민족주의와 국민사로부터 영향을 받는 한편 공식적 수사로

11 홍종욱, 앞의 논문(2020), 17~28쪽.

12 「력사 교원들과의 담화에서」, 《교원신문》, 1954년 9월 27일자.

13 「인민 학교 4학년용 『조선 력사』에 대하여」, 《교원신문》, 1955년 2월 5일자.

국제주의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그 주된 이유는 당시 소련의 민족주의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소련식’의 보편화로 받아들여진 국제주의로 표현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sup>14</sup> 소련으로부터 파견된 고려인들이 이와 같은 흐름을 주도하였다. 이들은 역사학을 포함한 북한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북한의 ‘소련화’를 이끌었다. 그런 점에서 앞서 언급한 고려인 역사학자 김승화가 리청원의 『조선근대사연구』를 민족주의적이라고 비판한 것은 단지 개인적 견해차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이었다. 김일성을 비롯하여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도 자신들의 ‘애국주의’에 대한 강조가 민족주의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경계하였다. 이러한 조심스러움은 “국제주의에 입각한 애국주의 사상”과 같은 관용적 표현에 내포되었다.

역사교육에서도 ‘국제주의’는 애국주의와 공존하고 있었다. 《교원신문》의 1954년도 간행분에는 「쏘련 선진 교육 경험 소개」라는 연재물이 거의 매 호 게재되었다. 여기에는 교수 방법, 소년단이나 사범전문 등 학생들의 생활, 새로운 교원 양성 체계 등 다양한 소련 교육 소식이 실려 북한 교원들의 참고자료가 되었다. 1955~1956학년도 사범전문학교의 교육과정을 살펴 보면, 「조선사」 과목은 2학년 36시간, 3학년 62시간이 배정된 데 비해 「세계사」 과목은 1학년 사범과의 경우 89시간이 배정되었다.<sup>15</sup> 이러한 현상은 조만간 탈소련화를 선언하게 될 김일성에 의해 비판의 도마에 오르게 된다.

1953년 스탈린의 사망과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 등을 계기로 한 소련 역사학의 변화는 북한 역사학에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

14 조호연, 앞의 논문, 159쪽.

15 1학년 교양과는 「세계사」에 72시간을 배정하였다. 김하영, 「1955~56학년도 인민 학교, 초급 중 학교, 고급 중 학교, 사범 전문 학교 교수 사업 집행에 대하여」, 《교원신문》, 1955년 8월 10일자.

이후 소련 역사학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한 부르잘로프(E. N. Burzhalov) 등은 동유럽과 러시아의 봉건제, 러시아 제국주의의 성격 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심지어 그들의 핵심 개념인 다(多)우클라드성(многоукладность)은 10월 혁명의 필연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여지도 가지고 있었다.<sup>16</sup>

스탈린 사후 소련 역사학의 변화가 북한에 미친 영향은 이에 대한 북한 측의 반응으로 짐작할 수 있다. 1955년 12월 김일성은 주체사상의 기원으로 잘 알려진 연설에서 '사상사업에서의 주체' 확립을 요구하였다. 이 연설에서 그는 문학예술과 함께 역사학 및 역사교육 분야에서 '소련풍'에 대한 경도와 '조선사'에 대한 경시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학교에서도 조선 력사의 강의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쟁 때 중앙 당 학교 과정안에서 세계사는 1년에 160시간이나 되어 있었으나 조선사는 극히 적은 시간 밖에 배당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 인민 학교에 가 보니 사진을 걸었는데 마야콥스끼, 뿌슈킨 등 전부 외국 사람들 뿐이고 조선 사람이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 우리는 아직도 우리 나라의 력사와 우리의 민족 문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사업을 조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sup>17</sup>

김일성의 이 연설은 당내 '소련풍'을 주도했던 파북 고려인, 즉 소련계를 집중적으로 비판하였다. 그에 따르면 북한의 선전 사업을 비롯한 조선사 연구와 교육은 소련식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을 보였다. 앞서 언급한 소련 '국민사'에 대한 북한 역사학계의 관심을 포함하여 생각하면, '소련식'

---

16 조호연, 앞의 논문, 160~161쪽.

17 김일성, 「사상 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당 선전 선동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55년 12월 28일」, 『김일성선집(제2판)』 4(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329~335쪽.



에 대한 동경과 '우리식'에 대한 애착이 교차하며 경쟁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김일성은 이러한 맥락에서 자신의 권력과 소련으로부터의 자율성을 강화할 기회를 포착하였다. 그의 '주체' 연설은 본질적으로 스탈린 사후 소련에 불어 닥친 탈스탈린화에 대한 반응이자, 탈소련화의 신호탄이었다. 이 연설을 통해 그는 탈스탈린화와 역사학의 수정주의적 경향에 대해 선을 긋고, 민족주의와 국민사로 돌아갈 것을 요구한 셈이다. 김일성의 교조주의 비판은 1956년 제3차 당대회에서도 반복되었다. 사상사업 중에서도 조선 역사에 대한 연구와 선전 사업을 특별히 길게 거론하며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우리 당 사상 사업에 존재하는 교조주의의 엄중한 표현의 하나는 조선 문제, 특히 우리 나라 력사에 대한 연구와 선전이 망각되거나 무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일꾼들과 당원들은 외국의 혁명 력사는 알면서도 자기 나라의 혁명 력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이리하여 과거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로동 운동사, 민족 해방 투쟁사들에 대한 연구가 무시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정리 또는 편찬 사업을 거의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진행된 우리 나라의 로동 운동과 민족 해방 투쟁의 경험을 연구하지 않고서 어떻게 조선 혁명을 옹기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 우리는 사상 사업의 매개 분야에서, 모든 학교들에서, 당 교양망들에서 이러한 기풍을 수립함으로써 교수 제강을 개편하며 당 선전 사업에서 자기 주체를 엄연히 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 혁명 운동에 관한 일체 자료를 수집 정리하며 우리 혁명 운동의 력사를 연구 편찬하기 위한 사업을 강력히 추진시켜야 할 것입니다.<sup>18</sup>

---

18 김일성, 「조선 로동당 제3차 대회에서 진술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결 보고」, 《근로자》 1956년 제5호, 80~81쪽.

제3차 당 대회에서 김일성이 조선 역사, 특히 민족해방운동사 연구와 교육을 강조하면서 역사학계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였다. 당 력사연구소 소장 리청원은 당 대회 토론을 통해 '과학에서의 주체성'을 강조하며 조선의 혁명적 애국주의 전통 연구, 조선 고전에 대한 출판과 복각 사업, 고고학과 민속학 연구, 역사 유적 답사의 조직 등을 구체적인 과제로 제안하였다.<sup>19</sup> 당 대회 직후 《력사과학》은 학계에서 자료 수집 사업에 대한 관심이 희박하

19 「리청원 동지의 토론」, 《로동신문》 1956년 4월 28일자. 2020년 논문에서 필자는 1956년 4월 조선로동당 제3차 대회의 여파로 리청원이 과학원 력사연구소 소장과 당 중앙위원회 고급당학교 교장에서 해임되어 과학교육출판사 교정원으로 좌천되었다고 서술하였다. 1955년 당시 리청원이 과학원 상무위원·사회과학부문위원장·력사연구소장을 겸임하고 있었다는 서동만의 2006년 서술과 구소련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서동만의 책에서 해당 서술의 근거는 확인할 수 없다. 리청원의 생애를 다룬 홍종욱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는 1952년 12월 과학원 창립 당시 사회과학부문위원장을 맡았으며 1957년에는 력사연구소 근대 및 현대사 연구실장이었다고 한다. 그가 력사연구소장 직을 맡았는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필자가 기존 및 새로 발굴된 구소련 자료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1950~1957년까지 리청원은 다음의 직위를 거쳤다. 과학원 조선사 강좌장(1950~1952), 당 중앙위원회 사회과학부장(1952~1954), 과학원 사회과학부장(1952), 과학원 상임위원(1956), 민주과학자동맹 부위원장(1956),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1956), 조선력사편찬위원회 위원장(1956), 당 중앙위원회 산하 력사연구소 소장(1956~1957), 교육도서출판사 직원(1957). 1957년 4월 6일 평양 주재 소련 대사관 제2비서 티토렌코와의 대화에서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유성훈은 리청원이 현재 당 중앙위원회 산하 력사연구소 소장이라고 언급하였다. 마찬가지로 1957년 10월 17일 티토렌코와의 대화에서 과학원 후보원사 장주익은 8월부터 진행된 과학원 당 조직 회의 결과 리청원이 당 중앙위원회 연구소장에서 해임되어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당 중앙위원회 연구소장'은 당 중앙위원회 력사연구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즉 그는 1957년 8월까지 당 력사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었으며 이후 교육도서출판사 직원으로 좌천되었음을 복수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가 2020년 논문에서 제시한 기존의 서술은 잘못이며 위의 내용으로 정정되어야 함을 밝힌다. 조수룡, 앞의 논문(2020a), 143~145쪽;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선인, 2006), 519쪽; 홍종욱, 「제국의 사회주의자: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 이청원의 삶과 실천」, 『상허학보』 제63집(2021), 162~164쪽; РГАСПИ, ф. 495, оп. 228, л. 809, л. 2; АВПРФ, ф. 0102, оп. 13, п. 72, л. 6. лл. 161·333.

였음을 반성하면서 이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과제를 제시하였다.<sup>20</sup> 《력사과학》의 지면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1955년에 소련 역사학 성과 16편의 번역이 실렸는데, 1956년에는 제1호에 한 편이 실린 이후 아예 사라졌다.<sup>21</sup> 같은 해 9월 《교원신문》은 사설에서 제3차 당 대회가 “모든 사업 분야에서 주체를 확립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지적하며 교수에서의 ‘주체’를 확립할 방안에 대해 논하였다. 사설은 “민족적 사명과 국제주의적 사명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서, “우리 인민의 애국적, 혁명적 전통과 투쟁 경험을 연구하며 우리의 찬란한 력사와 문화를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sup>22</sup>

제3차 당 대회 토론에서 리청원이 ‘과학에서의 주체성’을 역설하고 《력사과학》이 연구와 교수에서 ‘주체’의 확립을 요구하고 나선 사실은 소련과 북한에서 일관되게 나타난 모종의 부조리를 보여준다. ‘당파적’ 또는 ‘주체적’이라는 수사는 과학이 표방하는 ‘객관성’과는 화합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소련 역사학의 관점을 이어받은 북한의 역사학자와 교육자들은 “사회발전의 법칙”을 발견하고 이해하고자 노력하였고, 나중에는 그것이 ‘주체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부조리는 근대 역사학이 줄곧 처해 온 주관성과 객관성 사이의 긴장을 연상시킨다. 근대 역사학은 19세기 과학적 인식 체계를 역사 연구에 적용하면서 과학의 한 분과로 자리매김하려 하였지만, 이러한 시도는 국민(민족)국가의 서사라는 단일한 공적 기억을 생산하는 데 기여하면서 과학이 아닌 국민국가를 절대화시켰다.<sup>23</sup> 북한 역사학에서 나타난 ‘주체’의 강조가 이러한 근대

20 문미라, 「1950~1960년대 북한의 ‘혁명전통’ 확립과정과 역사인식의 변화」, 『역사와 현실』 119(한국역사연구회, 2021), 243~244쪽.

21 홍종욱, 앞의 논문(2020), 33쪽.

22 「교수에서의 주체성」, 《교원신문》, 1956년 9월 22일자.

23 김기봉, 「역사의 문학화’와 ‘문학의 역사화」, 『역사와 문화』 6(문화사학회, 2003),

역사학의 구조와 동떨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연안계와 소련계 일부 인사들이 벌인 반김일성 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1956년 8월전원회의사건 이후 이른바 ‘반종파투쟁’이 벌어졌다. ‘종파주의자’는 ‘사대주의자’라는 혐의도 동시에 받았기 때문에 당 사상사업의 측면에서는 ‘주체’ 확립의 연장선이기도 하였다. ‘반종파투쟁’의 초점은 8월전원회의사건 주동자들이 주장한 일련의 개혁 방안을 지지하거나 동조한 이들을 ‘종파주의자’와 ‘수정주의자’로 모는 데 있었다. 학계에서는 당 위원장이 중국으로 망명해버린 김일성종합대학 등에 검열이 집중되었다. 약 3개월에 걸친 검열 결과 역사학부에서만 학부장 김정도, 세계사강좌장 김현수, 교원 손택영 등이 반김일성파를 지지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sup>24</sup> 1년 넘게 계속된 ‘반종파투쟁’은 1958년 3월에 열린 제1차 당대표자대회에서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이 확정되면서 마무리되었다. 같은 시기 간행된 《인민교육》 1958년 3호에서 립만은 김정도의 논설을 비판하며 그가 “‘엠.엘.파’ 종파 집단의 수치스러운 한 성원이며 최창익의 충실한 졸개”라고 낙인찍었다. 김정도는 비판 대상이 된 논설에서 3·1운동 당시 민족 부르주아지가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았는데, 이를 수정주의적 왜곡이라며 비판한 것이다.<sup>25</sup> 이 외에도 리청원, 송례정과 같이 숙청된 당내 비주류와 유사한 맥락의 주장을 한 학자들의 논저가 사후에 공개적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sup>26</sup>

1956~1957년의 정치사회적 격변 이후 역사학계에서는 논쟁과 상호 비판

---

194쪽; 조승래, 「공적 역사(History)에서 사적역사들(histories)로: 하나의 이야기」, 『사립』 제32호(수선사학회, 2009), 336쪽.

24 조수룡, 앞의 논문(2020a), 143쪽.

25 립만, 「김 정도의 『고종 조선사 '3.1운동' 교재 취급에 대한 소견』에 대하여」, 《인민교육》, 1958년 3호, 66~69쪽.

26 리청원과 송례정의 논저에 대한 북한 학계에서의 비판은 다음을 참조하라. 조수룡, 앞의 논문(2020a), 136~146쪽; 조수룡, 앞의 논문(2020b), 332~333쪽.

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다. ‘과학’을 표방한 북한 역사학의 주된 방법이 비판과 자기비판에 기초한 집체 연구였다고 한다면<sup>27</sup>, 1956~1958년을 거치며 그 ‘과학성’은 희석되어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논쟁과 상호 비판의 자리를 점차 대신한 것은 ‘이야기’를 통한 신화의 구성과 전승이었다. 북한에서는 1950년대 중반부터 ‘오체르크’라는 문학 장르가 ‘혁명 역사’의 서사를 구성하는 데 동원되기 시작하였다.

### Ⅲ. 오체르크 문학의 수용과 변용

오체르크(ocherk, очерк)는 실재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실제 일어난 사건을 묘사하는 서사적 문학의 한 형태이다. 북한에서 번역된 소련의 『문예 소사전』은 단편 소설 작가가 일련의 생활적 사실을 연구하여 허구와 상상에 의해 사건을 묘사하는 데 비해, 오체르크 작가는 생활적 사실 중 본질적인 것을 선택하여 묘사한다고 정의한다. 그에 따르면 오체르크 작가는 허구적 요소에 의거할 권리가 없다.<sup>28</sup> ‘오체르크’라는 장르 명칭은 1961년 이후 북한에서 ‘실화문학’ 또는 ‘실화소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비교적 최근에 발간된 북한 문학 이론서에서는 ‘실화소설’을 “실재한 인간들과 그들의 실생활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소설의 한 형태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장르를 중국에서는 보고문학이라 칭한다. 이외에도 유사한 명칭으로는 기록문학과 르포르타주가 있다.<sup>29</sup>

27 홍종욱, 앞의 논문(2020), 29쪽.

28 엘. 지모페예프·엔. 웬그로브(저), 최철윤(역), 『문예 소사전』(조쏘출판사, 1958), 121쪽.

29 리현순, 『문학형태론』(문학예술출판사, 2007), 83쪽; 권세영, 「북한의 ‘실화소설’ 장르 특성 변모 양상 연구: <조선문학>의 평문과 북한문학이론서들을 중심으로」,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체르크는 소련에서 유래한 장르이다. 오체르크는 팩토그래피(factography, фактография)라고 불리는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대 초 시도된 새로운 예술 경향의 산물이다. 1928년부터 시작된 소련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농업국 러시아를 근대적 공업 국가 소련으로 개조하기 위한 거대한 혁명이었다. 급속한 산업화는 팩토그래피 경향이 등장하는 배경이자 동기가 되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마그니토고르스크 제철소와 드네프르강 수력발전소, 발트해와 백해를 잇는 백해 운하의 건설 등 소비에트 산업화 및 사회주의 건설의 신화로 자리매김할 산업 현장이 예술가의 붓과 펜을 기다리는 무대로 떠올랐다. 초대형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과 그것이 야기한 사회적 변형을 최대한 정확하게 기록·기술하는 것은 그들의 주요 목표 중 하나였다.<sup>30</sup>

순수문학과 장편소설에 맞서 그들이 내놓은 장르적 대안은 일기, 전기(傳記), 회상기, 여행기, 르포르타주 같은 형식들이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오체르크’라고 불리는 짧은 에세이 장르였다. 소비에트 팩토그래피의 중심 인물인 세르게이 트레치야코프(Сергей Третьяков)는 “오체르크는 장르가 아니다. 그것은 거대한 운동이다. [...] 오체르크는 예술문학과 신문이 교차하는 지점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sup>31</sup>

이러한 운동은 새로운 작가상의 정립을 요구했다. 트레치야코프의 활동을 관찰한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에 따르면 그것은 ‘기술실천적(operierend, оперативный)’ 작가 모델이다. 기술실천적 작가는 “대중집회의 소집, 트랙터 대금 모금 활동, 콜호즈 가입을 위한 설득, 독서실 감독, 콜호즈 신문 제작, 모스크바 신문을 위한 취재, 라디오와 순회영화관 운영”

---

『한국문학논총』 제65집(2013), 557~558쪽.

30 김수환, 「소비에트 팩토그래피 (다시)읽기: 매체혁명과 작가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제71호(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8a), 121~122쪽.

31 위의 논문, 127쪽.

과 같은 일을 하며, “보도하는 것이 아니고 투쟁하는 것, 관객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한다.<sup>32</sup>

오체르크라는 문학 장르가 북한에 처음 소개된 것은 1952년 12월 《문학예술》에 리효운이 「문학장르 오체르크에 관하여」라는 평문을 발표하면서였다.<sup>33</sup> 약 1년 뒤인 1953년 11월 《조선문학》에 「가교공사장」이라는 제목의 오체르크를 표방한 작품이 처음으로 발표되었다.<sup>34</sup> 하지만 북한의 문화예술인 단체인 북조선예술총동맹은 일찍이 창립 당시부터 현장 중심의 ‘기술실천적’ 작가상을 강조하였다. 또한 1947년 3월 북조선로동당 중앙상무위원회는 「북조선에 있어서의 민주주의 민족문화 건설에 관하여」라는 결정서를 채택하고 작가와 예술가들이 “공장, 철도, 광산, 농촌, 어장 등 군중 깊숙이 들어가” “조선사람의 영웅적 노력과 투쟁과 승리와 영광을 사실주의적 방법으로 그리”라는 창작 방법론을 제시하였다.<sup>35</sup> 이에 대한 문학적 실천의 일환으로 1947년부터 《문화전선》, 《문학예술》, 《조선문학》 등의 문예지에는 ‘현지보고’, ‘르포르타주’와 같이 오체르크와 유사한 형식의 작품이 다수 발표되었다. 김사량의 「動員作家的 手帖」, 송영의 「生産과 文學」, 남궁만의 「現地動員 作家手帖: 製絲工場記」, 박세영의 「현지보고 레보르마주: 都工興南日記」 등이 대표적이다.<sup>36</sup>

---

32 발터 벤야민, 「생산자로서의 작가」, 반성완 편역,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민음사, 2003), 256쪽; 김수환, 「「생산자로서의 작가」: 발터 벤야민이 읽은 소비에트 팩토그래피」, 『비교문학』 제73집(2018b), 41~43쪽.

33 리효운, 「문학 장르 오체르크에 관하여: 창작 방법을 중심으로」, 《문학예술》, 1952년 12월호(문예총출판사).

34 천정송, 「가교공사장」, 《조선문학》, 1953년 11월호(문예총출판사).

35 「북조선에 있어서 민주주의 민족문화 건설에 관하여(북조선로동당 중앙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 결정서 1947년 3월 28일)」, 『북한관계사료집』 30(국사편찬위원회, 1998), 165쪽.

36 김사량, 「動員作家的 手帖」, 《문화전선》, 제4호(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1947); 송영, 「生産과 文學」, 《문화전선》, 제4호(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1947); 남궁만, 「現地動員

리효운은 오체르크를 기행 오체르크, 초상 오체르크, 사건 오체르크, 시평 오체르크, 전쟁 오체르크 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오체르크에 대해 “쏘련에서도 아직 확정된 구별론이 없”고 “「오체르크를 어떻게 써야 하는 가?」에 관한 일정한 처방은 없다”고 하였다.<sup>37</sup> 오체르크라는 장르는 엄밀한 장르적 경계 없이 다소 폭넓게 수용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소련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북한에서도 오체르크는 전후 복구 건설과 관련하여 생산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영웅적 투쟁’을 형상화하는 데 활용되었다. 1954년 1월 박진의 「채석 브리가다」, 1955년 9월 발표된 한설야의 「강철: 성진제강소에서」, 1956년 7월 발표된 리춘진의 「조선소에서」 등이 그와 같은 경향의 대표적인 작품이었다.<sup>38</sup>

흥미로운 점은 소련과 달리 북한에서 오체르크가 한국전쟁 시기 인민군 영웅을 형상화하기 위한 장르로 도입되기 시작했다는 평가이다. 한설야는 1953년도 문학 분야 사업을 결산하는 글에서 산문 분야의 특징적 경향으로 오체르크 문학에 대한 관심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썼다.

이 밖에 작년도 산문 분야에서 또 하나 특기할 사실은 오체르크 창작에 대해서다. 많은 작가들은 급격한 현실의 전변과 함께 오체르크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그리하여 전쟁 중에도 수다한 작품이 창작발표되었으나 전후 인민 경제의 복구 건설과 관련된 작품 창작이 급속히 요구되면서 이 문학 장르는

---

作家手帖: 製絲工場記, 《조선문학》 창간호(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1947); 박세영, 「현지보고 레브르따주: 都工興南日記」, 《문학예술》 제2호(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1948); 권세영, 앞의 논문, 560~561쪽.

37 리효운, 앞의 글, 140쪽; 이영미, 「북한의 문학 장르 오체르크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4(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4), 413쪽.

38 이영미, 「북한의 자료를 통해 재론하는 오체르크와 실화문학의 계보」, 『한중인문학연구』 제52집(2016), 320~321쪽; 이영미·김종희, 「북한문학사의 비교문학적 재조명: 리효운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제69호(2018), 314쪽.



더욱 작가들에게 광범히 리용되기 시작하였고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sup>39</sup>

이를 근거로 이영미는 북한 오체르크의 출발점을 한국전쟁 시기로 보고 있다.<sup>40</sup> 1961년 11월에 간행된 『문학개론』에서는 오체르크가 “해방 후 문학 특히 조국 해방 전쟁 시기와 전후 시기 문학에서 더욱 활발하게 창작되”었다고 하여 전쟁 전 시기에서 그 출발을 찾고 있으나<sup>41</sup>, 이는 1950년대 중후반 전개된 문학에서의 ‘주체’ 확립의 산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북한에서 오체르크가 전쟁 영웅을 형상화하기 위한 장르로 도입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그것이 소련 문학 경향의 기계적 수용과는 거리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체르크를 처음으로 언급한 리효운의 평론에서 “선행(先行)된 전쟁기의 영웅”으로 김일성을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 그는 초상 오체르크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예로 고리키의 「브. 이. 레닌」과 한설야의 「인간 김일성」, 「영웅 김일성」 등을 꼽았다. 북한 문단에서 형상화할 전쟁 영웅 초상의 원형이자 전형으로 김일성을 들면서 이들 작품을 “초상 오체르크의 첫 발작”으로 간주하였다.<sup>42</sup> 소련에서 산업 현장과 노동 영웅을 형상화하는 한 장르로 발전한 오체르크를 북한에서는 나름의 방식으로 수용·재해석하여 전쟁 영웅, 나아가 항일투쟁 영웅을 형상화하는데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북한에서는 전후 복구 시기의 노동 영웅을 다룬 작품들과 함께 식민지 시기 항일 빨치산을 묘사한 오체르크가 다수 출판되었다. 송영이 『조선문학』 1955년 4월호에 발표한 「항일 빨치산의 영웅들」이 대표적이다.

---

39 한설야, 「전진하는 조선 문학: 1953년도 창작 사업의 제성과」, 《조선문학》, 1954년 1월호(조선작가동맹출판사), 118쪽.

40 이영미, 앞의 논문(2016b), 318~319쪽.

41 박종식·현중호·리상태, 『문학개론』(교육도서출판사, 1961), 158쪽.

42 리효운, 앞의 글, 134쪽; 이영미, 앞의 논문(2016b), 319쪽.

이는 1953년 하반기 송영이 항일무장투쟁 전적지 조사단의 일원으로 만주 일대를 답사한 내용 중 무장투쟁 참가자 리두수의 활약상을 묘사한 작품이다. 또한 그는 조사단의 활동을 정리한 오체르크 『백두산은 어데서나 보인다』를 1956년에 출간하였다. 이 외에도 김일신의 「승리의 행군」(1955. 8.), 「사월의 승리」(1956. 4.) 등을 이 시기의 대표적 항일 빨치산 오체르크로 들 수 있다.<sup>43</sup>

그 중에서도 『백두산은 어데서나 보인다』는 항일무장투쟁 전적지 답사의 결과를 학술 연구 보고서나 논문이 아닌 작가의 기행 오체르크로 간행·보급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답사는 당시 유적과 유물을 조사·수집하기 위해 과학원에서 조직한 학술 답사였다.<sup>44</sup> 그런데 이 결과를 학술 연구 보고서가 아닌 오체르크 문학의 형태로 간행한 것은 당시 북한에서 문학이 '사실의 기록'을 매개로 하여 '역사'와 '과학'의 영역을 침습해 가던 상황을 보여준다. 다음에서 1950년대 후반~1960년대 초반에 이르는 시기 북한의 역사교육, 그 중에서도 항일무장투쟁사 교육이 인민들의 주체성 구성을 위한 이야기를 구성하고 전승하는 데 동원되는 양상을 살펴보겠다.

#### IV. 항일무장투쟁사 교육의 문학적 재구성

『교원신문』 1954년 11월 1일자에는 교육성 보통교육국 교육방법연구회에서 작성한 시범 연구 주제들에 관한 기사가 게재되었다. 이 기사의 내용은 당시 교육성에서 일선 학교에 적용하고자 한 교수 주제들이 어디에 초점을

43 송영, 「항일 빨치산의 영웅들」, 《조선문학》, 1955년 4월호; 이영미, 위의 논문, 320쪽; 문미라, 앞의 논문(2021), 242쪽.

44 송영, 『백두산은 어데서나 보인다』 (민주청년사, 1956); 문미라, 위의 논문, 242쪽.

맞추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인민학교의 경우 제시된 11개 주제 중 다음의 3개의 주제가 식민지 시기에서 현대를 다루었다.

표1-1954년 11월 교육성 보통교육국 교육방법연구회의 시범연구 주제 (식민지 시기~현대, 인민학교)

주제명	적용 학년
미제의 조선 침략에 대한 죄악적 역사	5학년
10월 혁명의 역사적 의의와 조선 민족 해방 투쟁에 준 거대한 영향을 어떻게 교수할 것인가	5학년
김일성 원수의 혁명적 활동 개시에 대하여 / 1925년 조선공산당의 창건과 그의 해석에 대한 교수상 유의점	5학년

자료: 「각 교육 방법 연구회들에서의 시범적인 연구 제마」, 《교원신문》, 1954년 11월 1일자.

이 중 김일성의 혁명 활동을 다룬 것은 1개에 불과하였다. 그것도 1925년 조선공산당의 창건을 함께 다루어 김일성의 혁명 활동을 단독 주제로 취급하지 않았다. 초급 및 고급 중학교의 경우 28개 주제 중 다음 10개 주제가 식민지 시기에서 현대에 해당되었다.

표2-1954년 11월 교육성 보통교육국 교육방법연구회의 시범연구 주제 (식민지 시기~현대, 초급 및 고급중학교)

주제명	적용 학년
10월 혁명의 동방 식민지 약소 민족 해방 투쟁에 준 영향	고2, 3
3.1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교수에서 그의 취급 방법	고2, 3
1925년 조선 공산당의 창건과 그의 해소에 대하여	고2, 3
1920년대의 로동 운동에 대한 교수상 류의할 점들에 대하여	고2, 3
1930년대에 있어서 민족 해방 투쟁의 새로운 단계로의 방전과 김일성 원수의 혁명적 활동의 개시	고2
제2차 대전에서 쓰러 군대의 결정적 역할	고3
인민 정권 기관으로서의 인민 위원회의 특성	고3
김일성 원수의 항일 무장 투쟁의 교수 계획(교수 시간 배당, 교수 목적 설정, 준비 사항 등)	-
민주 기지 창설에 대한 당과 김 일성 원수의 방침	고3
미제의 조선 강점 정책을 반대하는 남반부 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교수상 유의점	고3

자료: 「각 교육 방법 연구회들에서의 시범적인 연구 제마」, 《교원신문》, 1954년 11월 1일자.

이 중 김일성의 혁명 활동을 다룬 것은 2개에 해당되었다. '민주기지 창설'에 관한 주제를 포함해도 3개였다. 소련과 10월 혁명의 역할을 2개 주제에서 다룬 것 등을 감안하면 주제 배정에서 비교적 균형이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나중에 '종파주의'로 평가 절하되어 '혁명전통'에서 배제되는 1920년대 조선공산당을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이와 같은 균형은 1955~1956학년도 교수 사업에서도 유지되었다. 1955~1956학년도 사범전문학교 『조선사』 2~3학년 교육과정 중 식민지 시기에 현대에 해당되는 단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3- 1955~1956학년도 사범전문학교 『조선사』 2~3학년 교육과정(식민지 시기~현대)

단원명		배정 시수
2학년 (총 36시간)	4. 조선의 식민지화와 일본 제국주의 조선 강점을 반대하는 투쟁	7
	5. 일본 제국주의 강점 정책과 초기의 반일 민족 해방 운동	5
3학년 (총 62시간)	6.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영향 하의 조선 민족 해방 운동의 장성	8
	7. 반일 민족 해방 운동의 무장 투쟁 계단에서의 발전, 김 일성 원수 령도 하의 항일 무장 투쟁의 양양	10
	8. 썬베트 군대에 의한 조선 해방, 새 형태의 인민 정권 수립과 민주 개혁 실시를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	10
	9. 조선 로동당의 창건, 인민 경제 부흥 발전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	8
	10.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평화적 조국 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	8
	11. 자유와 독립을 위한 조선 인민의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13
12. 평화적 조국 통일의 담보인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	5	

자료: 김하영, 「1955-1956 학년도 인민 학교, 초급 중 학교, 고급 중 학교, 사범 전문 학교 교수 사업 집행에 대하여」, 《교원신문》, 1955년 8월 10일자.

열거한 74시간의 교육 과정 중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에는 10시간이 배정되었다. 여기서도 김일성의 혁명 활동에 특별한 비중이나 관심을 할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956년도 인민학교 제5학년 『조선력사』 과목의 같은 시기에 해당하는 단원별 교수 시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4- 1956년도 인민학교 제5학년 『조선력사』 교육 과정(식민지 시기~현대)

단원명	배정 시수
10. 일본의 조선 강점을 반대하는 조선 인민의 투쟁	3
11. 1910년대의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통치와 그 시기의 조선 민족 해방 운동	2
12. 위대한 10월 사회주의 혁명과 조선 민족 해방 운동의 발전	5
13. 김일성 원수 지도하의 항일 무장 투쟁	10
14. 위대한 쏘련 군대에 의한 조선 해방, 민주 기지 창설	7
15. 민주 기지 강화와 인민 경제 부흥 발전을 위한 투쟁	4
16.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8
17. 자유와 독립을 위한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11
18. 정전 후의 우리 나라	4
복습	5

자료: 「인민 학교 제4학년 및 제5학년을 담입하게 될 교원들의 각 과목 교수 준비에 대하여」, 《교원신문》, 1956년 7월 7일자.

여기에서는 열거한 59시간의 교육 과정 중 10시간이 김일성의 항일무장 투쟁에 배정되었다. 앞서 예시한 두 자료와 비교하면 각 주제 사이의 균형이 추구되는 가운데 김일성의 혁명활동에 배정된 시간이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1955년 12월 전원회의와 1956년 4월 제3차 당 대회를 계기로 한 탈소련화와 ‘주체’ 확립 기류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1955년 이전 시기에는 일선 학교의 실제 역사교육에서도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은 다른 교육 과제들 중 하나로 취급되었을 뿐, 우선시되지 않았다. 1955년 3월 2일자 《교원신문》에는 인민학교 5학년용 『조선력사』에 대한 원산 제1사범전문 부속 인민학교 교원들의 의견이 실렸다. 이 지면에서 교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들을 개진하였다. “국제주의에 입각한 애국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는 면에서 미약한 감을 주는 결함이다.” “쏘베트 군대의

해방자의 역할이 충분히 표현되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의 반역적 죄행에 대한 폭로 사업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조국의 장래에 대한 전망을 주는 면에서 부족점을 가지고 있다.”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과 관련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sup>45</sup>

물론 이 시기 ‘혁명의 수령’으로서 김일성의 업적에 대한 교육이 경시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1954~1955년도 《교원신문》에는 김일성의 생애와 업적에 대한 교육 경험과 사례에 관한 기사가 꾸준히 게재되었다. 기사들은 대체로 김일성의 혁명투쟁에 대한 교육을 위해 “수령의 략전”을 활용하고 있다고 전하였다.<sup>46</sup> 이는 1952년 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 간행한 『김일성장군의 략전』을 가리키는 것이다.<sup>47</sup> 이 외에 교육 수단으로 활용된 것은 전적지 답사와 박물관 견학 정도가 있었을 뿐, 이때까지 활자로 된 다른 수단은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sup>48</sup> 이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사 교육에 대한 관심의 부족보다는 자료와 연구가 부족했던 상황을 반영한다. 이때까지만 해도 『김일성장군의 략전』 외에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에 관한 교육 자료가 거의 없었던 것이다.

- 
- 45 「인민학교 5학년용 『조선력사』에 대한 소감」, 《교원신문》, 1955년 3월 2일자.
- 46 「김일성 원수의 생애를 심오하게 연구」, 《교원신문》, 1954년 4월 12일자; 「수령의 략전 연구 크루쇼크」, 《교원신문》, 1955년 3월 19일자; 「각지 학교에서 수령 연구 사업 활발」, 《교원신문》, 1955년 4월 9일자; 「존경과 사랑으로 수령 연구 사업에 열중」, 《교원신문》, 1955년 4월 9일자; 「무한한 경애심으로써 수령의 략전을 계속 깊이 연구」, 《교원신문》, 1955년 4월 16일자; 「수령의 략전 연구 사업과 애국주의 교양」, 《교원신문》, 1955년 4월 16일자; 「수령의 략전 연구 지도에서 얻은 경험」, 《교원신문》, 1956년 1월 28일자; 「김일성 원수 략전 연구실에서: 〈조국광복회에 대한 연구〉」, 《교원신문》, 1956년 3월 21일자 등.
- 47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김일성장군의 략전』(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1952).
- 48 「보천 고중 학생들 보천보를 답사」, 《교원신문》, 1955년 4월 13일자; 「김일성 원수의 고상한 애국주의 사상으로 학생들은 교양된다: 평양 제2중학교 학생들 국립중앙해방투쟁박물관을 견학」, 《교원신문》, 1955년 8월 27일자.

1955년 중반부터 국어 교과서나 문학 작품을 이용하여 ‘수령’의 일대기와 업적을 교육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1955년 4월 16일자 《교원신문》은 “수령의 력전”을 활용한 교육과 함께 인민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김일성 관련 텍스트를 소개하고 있다. 제1학년의 「김 일성 원수」, 「인민 군대」, 제2학년 「김 일성 원수」, 「귀하신 말씀」, 「김 일성 원수의 어린 시절」, 제3학년 「김 일성 장군의 노래」, 「만경대로 돌아오신 김 일성 원수」, 「김 일성 원수의 가르침 따라」, 「맹세의 노래」, 제4학년 시 「김 일성 원수」, 「김 일성 원수께서 학교에 오신 날」, 「김 일성 원수와 아동 혁명단」, 「부운물 싸움과 김 일성 원수」, 「보천보 싸움」, 「김 일성 원수를 맞던 날」, 제5학년 「아동 혁명단」, 「절세의 애국자」, 「우리는 대하가 되련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등이 이에 해당된다.<sup>49</sup> 이 기사를 통해 이미 인민학교에서는 국어 교과에서 김일성 개인숭배를 지향하는 교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흥미로운 것은 해당 교과서들이 거의 대부분 김일성의 어린 시절 또는 해방 후 귀환한 이후의 행적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역시 당시까지도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에 관한 조사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음을 반증한다.

이때까지는 문학 작품 중에도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형상화한 것은 많지 않았다. 해당 기사에는 “수령에 관한 교재”의 참고자료로 한설야의 「만경대」, 「개선」, 「영웅의 가계」, 『력사』, 조기천의 「백두산」 등이 제시되었다.<sup>50</sup> 『력사』와 「백두산」 정도가 항일무장투쟁을 소재로 다루었을 뿐이다.

1956년 제3차 당 대회를 계기로 민족해방운동사 연구, 특히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사 조사·연구가 본격화되었다. 송영이 1953년 항일무장투쟁 전적지 답사를 기초로 집필한 『백두산은 어디서나 보인다』는 그 신호탄이

49 「국어 교과서에서의 수령에 관한 교재 취급」, 《교원신문》, 1955년 4월 16일자.

50 위의 기사.

었다. 이후 량강도를 중심으로 한 항일무장투쟁 관련 지역의 당원과 인민들은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하기 시작했다. 지역 인민들은 전적지 답사, 유격대 참가자들과의 좌담회를 조직하는가 하면, ‘구호나무’와 유숙(留宿)터, 경작지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1959년 5월에는 연변과 백두산 일대 전적지를 조사하기 위한 대규모 조사단을 조직하였다. 10월까지 5개월에 걸친 조사의 대상 지역에는 1953년 조사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둔화현(敦化縣), ning안현(寧安縣), 동녕현(東寧縣), 혼춘현(琿春縣) 등이 포함되었다. 조사단은 답사 결과를 『항일무장투쟁 전적지를 찾아서』라는 책으로 출판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국립중앙해방투쟁박물관에 전시되었다. 이와 함께 북한 국내 혁명전적지와 박물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사업이 시행되었다.<sup>51</sup>

항일무장투쟁사가 역사 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강조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부터였다. 1959년 1월부터 《교원신문》에는 「김일성 원수의 혁명 활동을 배우며 가르치자!」와 같은 제목의 특집 기사가 주기적으로 실려 각급 학교에서의 ‘혁명전통’ 교육 사례를 소개하였다. 같은 해 4월부터는 「김일성 원수 항일 빨찌산 투쟁 력사에서!」라는 제목의 연재물이 실렸는데, 이는 김일성 항일유격대가 치른 주요 전투를 소개한 것이었다. 이외에도 이른바 “혁명전통 교양”을 다룬 기사들이 거의 매호 게재되었다. 이처럼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사에 관한 교육이 활발해지고 교수 자료 또한 급증한 데는 195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조사·수집 사업이 큰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제3차 당 대회 이후 활발해진 조사연구 활동의 성과는 문학에서 혁명전통 교양의 비중 확대에도 기여하였다. 기존의 『김일성장군의 력전』을 활용한

---

51 문미라, 앞의 논문, 244~251쪽.



천편일률적인 교육에서 탈피하여 전적지 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1930년대 당시의 '혁명적 문학 예술'을 활용한 교육이 시도되었다. 예를 들면 「조국광복회 10대 강령가」, 「혁명군의 노래」 등 100여 수에 달하는 '혁명 가요'가 자료로 활용되었다. 그와 같은 교육의 목적은 “공산주의자의 명백한 전형인 우리 유격 투사들의 아름답고 고귀한 정신으로 학생들을 감동하게” 하여, “우리 당이 계승한 혁명 정신을 학생들이 심장으로 받아 들이도록” 하는 것이었다.<sup>52</sup>

「조선 력사」 과목 교수에서도 조사 사업의 성과는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1956년까지 10시간이 배정되었던 사범전문학교 2학년에서의 김일성 항일 무장투쟁을 다룬 단원은 1959년에 20시간으로 늘어났다. 각급 학교에 갖추어진 '조선로동당 력사연구실'에는 「항일 유격 전투 지역도」, 「유격 근거지 - 해방 지구 분포도」, 「밀영지 분포도」, 「조국 광복회 조직망 분포도」와 같은 교육 자료가 배치되었다. 해당 수업의 핵심 목표는 “1920년대 말~1930년대 초에 조성된 국제 국내 정세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우리 혁명 발전의 객관적 추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있었다.<sup>53</sup>

그러나 이보다 더 주목되는 것은 이처럼 “과학적 분석”에 입각한 교육이 아닌 문학 교육, 설화의 구전, 이야기 모임과 같은 방법을 통한 '혁명전통 교양'이 강조·확산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조선로동당 력사연구실' 또는 '김일성혁명력사연구실'은 하나의 종합 예술선전 공간으로 운영되었다. 연구실은 “조선로동당 력사연구 크루쇼크”와 같은 학생 소조에 의해 운영되었는데, 이는 자료 조사반, 직관 선전반, 도서반, 문학 예술반과 같은 분반으

---

52 김헌순, 「혁명 전통 교양과 문학 교수: 1930년대 항일 무장 투쟁 과정에서 창작된 혁명적 문학 예술과 관련하여」, 《인민교육》, 1959년 5호, 40~41쪽.

53 리심오, 「조선 력사 「김 일성 원수의 혁명적 활동의 개시」를 교수하고」, 《인민교육》, 1959년 5호, 44~45쪽.

로 나뉘어 활동하였다. 자료 조사반과 도서반이 수집·정리한 자료와 도서 등을 활용하여 직관선전반과 문학예술반이 선전물을 배치하고 시 낭송회, 독서 모임, 작품 전시회 등을 조직하는 식이었다.<sup>54</sup> 당과 김일성의 혁명투쟁사를 선전·교육하는 데 문학, 음악, 미술 등 갖은 방법이 동원되었다.

‘연구실’에서의 이야기 모임, 독서 모임과 같은 활동은 일종의 의례로 수행되고 있었다. 각급 학교의 ‘연구실’에서는 종종 「한흡의 미시가루」, 「승리의 행군」 등 김일성과 항일유격대의 활동을 소재로 한 작품이나 조국해방전쟁 영웅의 일화를 나누는 이야기 모임을 가졌다. 이러한 모임은 연예 대원들의 「백두산」 낭송과 「김일성 장군의 노래」 제창으로 시작하여, 참가 학생들이 준비한 ‘영웅’의 일화를 소개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마지막으로 ‘혁명전통’을 형상화한 그림극으로 마무리하는 식이었다.<sup>55</sup>

또한 각급 학교에서는 조사·발굴된 자료를 토대로 집필된 오체르크 작품을 교육에 폭넓게 활용하였다. 예컨대 1960년 2월 평양동성중학교에서는 인민군 영웅 한계렬을 소재로 한 희곡을 준비하였다.<sup>56</sup> 이는 실화문학을 바탕으로 한 혁명역사 교육의 한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한편으로는 연극 준비 과정 자체가 하나의 문학예술 교육이었다. 이 외에도 《교원신문》에는 문학과 역사 교육을 결합한 ‘혁명전통’ 교양의 우수 사례가 소개된 전국 교육 경험 논문 발표회 소식, 빨치산 참가자들의 오체르크를 활용한 문학 수업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보도되었다.<sup>57</sup>

이처럼 1950년대 후반, 특히 1959년부터 북한의 역사교육 과정 중 식민지

54 「조선 로동당 력사 연구실 운영 체계를 확립」, 《교원신문》, 1960년 1월 16일자.

55 「생동적인 이야기 모임」, 《교원신문》 1959년 6월 27일자.

56 「당이 길러낸 영웅의 형상을 가르치면서」, 《교원신문》, 1960년 2월 6일자.

57 「전국 교육 경험 논문 발표회 입선 작품(요지): 문학 교수의 사상성 제고를 위하여」, 《교원신문》 1960년 2월 13일자; 「작품의 힘 있는 감화력으로: 사리원 대성 중학교 유만경 교원의 이야기」, 《교원신문》, 1960년 9월 12일자.

시기 항일무장투쟁사 교육이 크게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배경은 북한의 탈소련화와 '주체' 확립이 추동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신화화 작업이었다. 이를 위해 1950년대 중후반 전적지 조사와 자료 수집 사업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었지만, 조사의 목표가 '과학적 연구'와 '사실의 규명'에 있지 않은 이상 그 결과물이 꼭 역사 연구 성과의 편찬일 필요는 없었다. 오히려 인민대중의 감정을 격동시킬 수 있는 문학과 예술이 '혁명전통'과 공산주의 교양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떠올랐다. 그런 점에서 '주체'를 앞세운 당시 북한의 '혁명전통' 교양은 이른바 '감루(感淚)의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는 나치 독일이나 군국주의 일본의 역사교육을 연상시킨다. 역설적으로 이는 역사학의 인문학적 성격이 주로 반영된 교육이다.<sup>58</sup> 앞선 시기 '역사과학'이 마르크스-레닌주의 '과학'의 하위 범주로 위계화된 것처럼, 1950년대 후반을 거치며 역사교육은 '혁명전통'과 공산주의 교양 및 선전의 하위 범주로서 문학교육과 결합하는 양상을 보였던 것이다. 과학을 표방한 근대 역사학이 국민국가라는 신화를 전승하는 문학으로 회귀하였던 것처럼, 국민국가를 형성하고 보존하려는 강렬한 욕망은 북한 역사학의 경로 또한 같은 길로 인도한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 V. 맺음말

---

북한의 '역사과학'은 소련의 민족주의-애국주의에 입각한 국민사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북한의 역사교육은 '대중적 애국주의'라는 표현으로 이러한 관점을 강조하였다. 다만 소련의 민족주의는 우방 사회주의 국가들

---

58 송상헌, 앞의 책, 58~62쪽.

에서 소련식의 보편화, 즉 국제주의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북한에서도 이는 ‘국제주의적 애국주의’라는 관용적 표현으로 받아들여지며, ‘소련풍’과 ‘조선적인 것’이 결합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1955~1956년 시기 북한은 탈소련화와 함께 ‘주체’를 강조하였고, 이는 북한 ‘혁명역사’의 초점이 과학적 연구에서 서사의 구성으로 옮겨지는 단초가 되었다.

그와 같은 목적에 문학이 적극적으로 동원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는 소련으로부터 도입된 ‘오체르크’라는 장르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소련에서 노동 영웅을 형상화하는 데 활용된 오체르크는 북한에서 전쟁영웅과 나아가 빨치산 영웅을 형상화하는 장르적 도구로 변용되었다.

1956년 제3차 당 대회 이후 항일무장투쟁사 연구가 본격화하면서 역사교육 과정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전까지 여러 교육 과제 중 하나로 취급된 항일무장투쟁은 이후 혁명전통과 공산주의 교양의 핵심적 내용이 되어 다른 모든 과제들보다 우선시되었다. 이에 관한 연구와 교육 자료의 출간은 많은 경우 오체르크라는 문학 작품의 형태를 띠었다. 각급 학교와 교육망에서는 이를 활용한 혁명전통 교양을 일종의 집체예술과 의례로 승화시켰다. 이렇듯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에 이르는 시기 북한의 교육은 혁명전통과 공산주의 교양을 그 정점으로 하여 역사교육과 문학교육 등이 하위범주로 위계화하는 구조를 형성하였다.

1950년대 후반을 거치며 북한의 역사교육, 그중에서도 항일무장투쟁사 교육은 오체르크라고 하는 독특한 문학 장르의 등장과 함께 문학교육과 결합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항일무장투쟁과 조선로동당의 역사가 사실과 해석을 다투는 과학의 영역에서 특정한 서사를 생산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예술과 선전의 영역으로 넘어갔음을 보여준다. 사실이 아니라 인민들에게 김일성의 혁명활동과 공산주의 승리에 대한 감정의

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 잣대가 되었다.

한편 문학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강화와 그 일단인 오체르크 문학의 대두는 허구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문학, 문학이 역사로 접근하는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발터 벤야민이 제시한 “보도가 아닌 투쟁을 사명으로 삼는 작가, 관객의 입장을 취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작가”라는 모델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요구된 지식인, 즉 인텔리겐차의 형상이었다. 그곳에서 역사가와 역사교사는 작가에 가까워지고, 작가는 관찰자이자 허구의 이야기꾼이 아닌 역사의 행위자이며 사실의 생산자가 되는 수렴이 일어난다. 고립, 빈곤, 제한된 자유라는 현실과 ‘위대한 수령’이 이끄는 ‘행복한 인민 조선’이라는 초현실은 역사와 문학 교육 속에서 공산주의 승리를 위한 고난과 투쟁이라는 서사로 기묘하게 결합된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발터 벤야민(저), 반성완(번역),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서울: 민음사, 2003.  
송상헌, 『역사 인식의 논리와 역사교육』,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 2. 논문

권세영, 「북한의 '실화소설' 장르 특성 변모 양상 연구: 『조선문학』의 평문과 북한문학이론서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65, 2013, 555~577쪽.

김광운, 「분단 60년 북한의 학문세계: 혁명역사 연구분야」, 『북한학연구』 4권2호, 2008, 5~30쪽.

김기봉, 「역사의 문학화'와 '문학의 역사화」, 『역사와 문화』 6호, 2003, 193~206쪽.

김선호, 「국가건설기 북한의 역사교육체계와 교육이념: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제86호, 2020, 357~390쪽.

김수환, 「소비에트 팩토그래피 (다시)읽기: 매체혁명과 작가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71, 2018a, 115~139쪽.

\_\_\_\_\_, 「『생산자로서의 작가』: 발터 벤야민이 읽은 소비에트 팩토그래피」, 『비교문학』 제73집, 2018b, 33~55쪽.

김재용, 「현실정치의 규정력 아래 놓인 해방 후 북한의 역사서술: 북한 역사서술의 시원 검토」, 『역사와현실』 96호, 2015, 141~185쪽.

\_\_\_\_\_, 「북한의 역사 교육체계 확립과 민족해방운동사 인식」, 『史叢』 102호, 2021, 119~150쪽.

도진순, 「북한의 종파문제와 1920년대 민족해방투쟁에 대한 인식」, 『역사비평』 8호, 1989, 272~299쪽.

문미라, 「1950~1960년대 북한의 '혁명전통' 확립과정과 역사인식의 변화」, 『역사와현실』 119, 2021, 237~271쪽.

이영미, 「북한의 문학 장르 오체르크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4, 2004, 409~434쪽.

\_\_\_\_\_, 「북한 역사교육과 문학교육의 내적 상관성」, 『국제어문』 제68집, 2016a, 189~209쪽.

\_\_\_\_\_, 「북한의 자료를 통해 재론하는 오체르크와 실화문학의 계보」, 『한중인문

- 학연구』 52, 2016b, 307~331쪽.
- 이영미·김종희, 「북한문학사의 비교문학적 조명: 리효운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69, 2018, 289~320쪽.
- 조수룡, 「경합하는 ‘혁명전통’: 북한 초기 역사학계의 민족해방운동사 이해와 재구축」. 『사학연구』 137호, 2020a, 125~162쪽.
- \_\_\_\_\_, 「정전 후 북한에서 사회주의 이행 논의와 정식화」. 『한국사연구』 190호, 2020b, 307~340쪽.
- 조승래, 「공적 역사(History)에서 사적역사들(histories)로: 하나의 이야기」. 『사람』 제32호, 2009, 335~348쪽.
- 조호연, 「북한 역사학과 소련 역사학의 관련성: 1945년부터 1963년까지」. 『한국학연구』 77호, 2021, 147~177쪽.
- 홍종욱, 「북한 역사학 형성에 소련 역사학이 미친 영향」. 『인문논총』 제77권 3호, 2020, 13~58쪽.
- \_\_\_\_\_, 「제국의 사회주의자: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 이청원의 삶과 실천」. 『상허학보』 제63집, 2021, 119~178쪽.

## 국문초록

본 연구는 1950~1960년대 초 북한에서 항일무장투쟁사 교육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김일성의 가계를 중심으로 한 역사적 서사가 형성되는 일 기원을 검토하였다. 북한의 역사학과 역사교육은 역사적 유물론에 입각한 이른바 '역사과학'을 추구하였다. 1950년대 중반 북한이 탈소련화와 함께 '주체'의 확립을 강조하면서 항일무장투쟁사 연구도 본격화하게 되었다. 항일무장투쟁사는 대체로 '오체르크'라고 하는 문학 장르의 형태로 출간되었다. 각급 학교와 교육망에서는 이를 활용한 '혁명전통'과 공산주의 교양을 일종의 집체예술과 의례의 형태로 수행하였다. '혁명전통'과 공산주의 교양 아래, 역사교육과 문학교육 등 분과 교육이 그 하위 범주로 위계화된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는 북한의 항일무장투쟁사가 사실에 관한 해석을 다루는 과학의 영역에서 특정한 서사를 생산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예술과 선전의 영역으로 넘어갔음을 보여준다.

투고일 2022. 3. 28.

심사일 2022. 4. 11.

게재 확정일 2022. 5. 3.

주제어(keyword) 북한(North Korea), 역사교육(History Education), 문학교육(Literature Education), 오체르크(Ocherk), 항일무장투쟁사(The History of the Anti-Japanese Armed Struggle)



## Abstract

### From Science to Literature: Changes in the Education on the History of Anti-Japanese Armed Struggle in North Korea in the 1950s and Early 1960s

Jo, Soo-ryong

This study examines the origins of the formation of historical narratives centered on Kim Il-sung's family line through analysis of changes in the education of anti-Japanese armed struggle history in North Korea in the 1950s and early 1960s. North Korea's history and history education pursued so-called 'historical science' based on historical materialism. In the mid-1950s, as North Korea emphasized the establishment of Juche along with de-Sovietization, research on the history of the anti-Japanese armed struggle began in earnest. The history of the anti-Japanese armed struggle were usually published in the form of a literary genre called 'Ocherk'. Schools and education networks at all levels performed 'the revolutionary traditions' and communism education using them in the form of collective arts and rituals. Under the 'revolutionary tradition' and communist education, a hierarchical structure was formed in which departmental education such as history education and literature education were divided into subcategories. This shows that the history of North Korea's anti-Japanese armed struggle has shifted from the realm of science dealing with the interpretation of facts to the realm of ideological art and propaganda to produce and spread specific narratives.

